

경제

기아차 광주공장 48만8154대 생산

지난해 목표보다 5000여대 추가 달성 ... 2년 연속 생산 신기록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지난해 당초 목표보다 5000여대를 더 생산하며 2년 연속 사상 최대 생산 기록을 달성했다.

5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2011년 한해 동안 역대 최대인 48만 8154대를 생산, 당초 목표였던 48만 3000대를 훌쩍 넘어섰다.

사상 첫 40만대 돌파 기록을 세웠던 2010년도 41만1196대보다 18.7% 증가했고, 부도 위기에 내몰리며 연산 6만대에도 미치지 못했던 1998년과 비교하면 13년 만에 715.4% 증가한 기록적인 생산량이다.

이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이룬 쾌거라는 평가다. 2010년 9월 노사 합의로 50만대 생산체제를 갖춘데다, 2010~2011년 2년 연속 임금협상 무파업 타결의 성과라는 것이다.



차종별 생산 실적은 스포티지R이 17만6489대로 가장 많았고, 쏘울 16만7557대, 봉고트럭 10만1098대, 카렌스 3만8938대, 기타(군수, 대형버스) 4072대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광주공장의 히트작 스포티지

는 단일차종으로는 사상 최초로 지난 달 1일 누적 생산 100만대를 돌파했다. 지난 2004년 8월 첫 출시 이후 7년3개월만이었다. 광주공장의 연도별 생산량은 1998년 5만9864대, 2000년 16만1002대,

2003년 14만4028대, 2006년 31만 2622대, 2009년 32만3066대, 2010년 41만1196대 등으로 성장했다.

광주공장은 이 같은 성장세를 이어 올해 62만대 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공장은 중점과제로 '글로벌 경쟁력', '명차품질', '창의적 혁신'을 설정했다. 또 세부 추진방향으로 스키 고객을 최우선하는 생산체제 구축 △무결점 품질로 고객감동 실현 △원가 혁신 통한 경쟁우위 확보 △상호 협력의 신뢰문화 정착 등을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또 광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협력업체와 동반성장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나눔활동 등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서 만드는 '스마트 에어컨Q'

삼성전자는 5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회사 관계자와 광고 모델 김연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기능을 한층 강화한 신제품 '스마트 에어컨Q' 발표회를 열었다. 광주사업장에서 생산하며 일반 제품보다 소비전력을 최대 89.5%까지 줄였다. 출고가는 230만~560만원이다. <삼성전자 제공>

남화토건 31일 지역 건설업체 첫 코스닥 상장

"500억원 규모 미군 공사 수주"

공모 예정액 90억원

전남지역 증권 건설사인 남화토건(주)이 광주·전남 건설업체로는 처음으로 오는 3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5일 남화토건(대표이사 최상준·사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코스닥시장 상장 관련 투자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남화토건은 오는 9일부터 이틀간 수요예측을 거쳐 17~18일 청약 받고 31일 상장한다. HMC투자증권이 주관할 예정이다.

공모주식수는 총 300만주이며, 공모희망가격은 2600~3000원으로 정해졌다. 총 공모예정금액은 78억~90억원이다. 공모를 통해 약 90억원을 모아 대부분 차입금 상환과 하도급 대금결제에 사용할 예정이다.

최상준 대표이사는 "상장을 결정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군 공사가 많이 수주하려는 것"이라며 "회사 규모가 작고 상장이 안돼 있어 수주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으로 최대 5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발판으로 국외시장 진출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남화토건은 안정적인 사업구조가 최대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1958년 설립된 남화토건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건축 65%, 토목 31%의 비교적 균형적인 매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또 전체 매

출의 55%를 관공사에서, 25%를 미군 시설공사에서 각각 얻었다.

특히 1979년 미군납수출업체로 등록한 후 2000년대 들어 매년 수주액 60억원 이상의 미군 공사를 꾸준히 맡아왔다.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액 601억원, 영업이익 72억원을 달성했다. 4분기까지 매출액 800억원, 영업이익 85억원을 낸 것으로 회사 측은 추산하고 있다.

부채 비율이 20% 이하로 업계 평균인 150%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아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과 같이 신용등급 'A+' 받고 있다.

계열사로는 슬래그 시멘트 제조업체인 한국시멘트(주), 무안컨트리클럽,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섀넬저축은행 등이 있다. 또 서석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유당학원 및 공익법인인 유당문화재단을 통해 교육사업 및 사회환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계열사인 한국시멘트도 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 실습생 경력자 정규직 채용

실습생 제도 전면 개편

기아차 광주공장이 실습생 경력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채용에 나선다.

기아차는 광주공장은 6일 광주공장에서 실습을 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공개채용을 거쳐 1분기 중 신

규채용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채용시기 및 규모는 추후 발표한다. 그동안 광주공장에서 실습을 한 고교 실습생은 600여명이다.

광주공장은 또 지난달 발생한 고등학생 실습생 사고를 계기로 실습

생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아차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맞춤형 산업인재를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동차 관련 전문교육 실시 등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 시행할 방침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고교 실습생 사고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면서 "안타까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모범적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012년 투자 및 고용 계획'을 발표, 올해 생산직 정규직원 2200여명을 비롯해 총 75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설 차례상 비용 18만원

광주 전통시장 기준 지난해보다 2.3% 하락

설을 3주 정도 앞둔 가운데 올해 설 제수용품 구입비용은 광주 전통시장 기준 지난해보다 2.3% 하락한 18만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 광주·전남 지사는 최근 광주 6개소(전통시장 3개소·대형 유통업체 3개소)를 대상으로 떡국·쇠고기(우둔)·동태·대추·밤 등 주요 설 제수용품 22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양동·대인·무등시장 등 전통시장의 제수용품 비용은 지난해 19만2809원에서 올해 18만8405원으로

로 2.3% 하락했으며, 대형 유통업체는 지난해 28만511원에서 올해 26만 8039원으로 4.5%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배·밤·대추·곶감 등 과일류와 쌀·흰떡의 가격이 상승했지만 쇠고기·배추·무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추(400g당)는 지난해 3264원에서 올해 6019원으로, 배(5개당)는 지난해 6730원에서 올해 1만원으로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경 광주·전남지사장은 "배추·무는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크게 늘었고, 쇠고기는 사육두수 증가로 출하 대가물량이 충분해지면서 올해 설 제수용품 비용이 지난해보다 낮아졌다"며 "하지만 잦은 비로 대과(大果) 생산량이 줄어든 과일류와 쌀 가격은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aT는 예년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한우 선물세트 할인판매 행사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설 제수용품 관련자료는 aT 농수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www.kamis.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광주·전남 기업들 "1월에도 자금사정 어렵다"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은 설이 낀 올해 1월에도 여전히 자금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매출액 20억원 이상 광주·전남지역 기업 419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2011년 12월 자금사정 조사' 결과, 기업 자금사정 BSI(기업경계지수)는 88로 전년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은 92로 전년보다 5포인트 상승했지만, 비제조업은 85로 전년보

다 3포인트 하락했다.

12월 자금수요BSI는 109로 전달보다 1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제조업(116)은 1포인트 내리고 비제조업(103)은 3포인트 올랐다. 12월 자금조달 BSI는 96으로 전달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올해 1월 기업자금사정 전망BSI는 83으로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며 전년보다 5포인트 하락, 자금난이 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화폐 발행액·환수액 급증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의 화폐 발행액과 환수액이 크게 증가했다.

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2011년 중 광주·전남지역 화폐수급 동향'을 분석한 결과, 화폐발행액은 2조7878억원으로 전년보다 14.1%(3455억원), 환수액은 2조5942억원으로 전년보다 9.5%(2247억원) 증가했다.

이 중 은행권은 발행 2조7786억원, 환수 2조592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4.2%, 9.5% 늘었다.

위조방지요소를 대폭 강화한 새 화폐가 발행된 2007년을 제외하면 최근 들어 가장 높은 발행·환수 증가율이다.

총 발행액에서 5만원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에 48.0%에 이르고, 총 환수액에서는 1만원권이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67.4%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주화는 발행이 92억원으로 전년보다 1.1% 감소했고, 환수는 13억원으로 전년보다 106.0% 증가했다.

화폐 종류별 순발행 규모는 2009년 최초 발행 이후 5만원권은 지속적으로 발행효과를 유지했지만, 1만원권은 꾸준히 환수효과를 보이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신용보증재단 남지점 개점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형진)은 5일 광주시 남구 백운동에서 남지점 개점식을 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사진>

광주신보는 이날 남지점 개설로 광주 5개 자치구에 모두 영업점을 갖췄다. 남지점은 광주 남구지역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서비스 편의 증진을 담당하게 된다.

광주신보는 설립이후 6만여건 1조7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해 광주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융통에 크게 기여했다. 또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등을 통해 16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1863.74 (-2.48)
코스닥지수 521.96 (+5.66)
금리(국고채 3년) 3.34% (-0.01)
원·달러 환율 1152.70원 (+4.1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since 1982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 쥘 톤 -

말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국제보청기

www.kjhr.com

- 노인성 난청에 탁월한 보청기
- 자연스런 소리연출이 가능한 보청기
- 이명 완화에 효과적인 보청기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